

러시아 극동개발 추진현황과 한·러 경제협력 방안

I. 극동러시아의 경제적 중요성	1
II.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추진내용	3
III. 극동러시아 투자유치지역 현황	9
IV. 한·러 경제협력방안	13

확인 : 수석조사역 조양현 (6255-5711)
yhjo@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5-5759)
ykj@koreaexim.go.kr

I. 극동러시아의 경제적 중요성

□ 푸틴 3기 정부는 극동지역 발전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

- 2012년 이후 아시아태평양(극동 러시아) 중시정책 발표
 - 푸틴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에서 “21세기 러시아의 발전은 동방에 달려 있다”(2012. 12.),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은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발전 가능성이며, 새로운 대외정책의 무대를 여는 것”(2013. 12.)이라고 천명
- 유럽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교역 및 투자 협력의 방향 전환
 - 2010년을 전후하여 유럽의 경제침체로 인한 유럽과의 에너지 교역 감소, 투자 유치 어려움이 주된 원인¹⁾

<박스 1> 극동지역 에너지 개발 및 수출의 중요성

- ▶ 극동바이칼 지역 자원 현황²⁾
 - 매장: 러시아 전체 원유의 6%, 가스의 13.5%
 - 생산: 러시아 전체 원유의 6.3% 가스의 4.6%
 - 미탐사 지역이 많아 풍부한 개발 잠재력 보유
- ▶ 러시아 정부는 2035년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아태 지역 자원 수출비중 확대 계획³⁾
 - 원유 및 석유제품은 2014년의 12%에서 2035년에는 23%로 증대
 - 가스는 2014년 6%에서 2035년에는 31%로 증대
 - *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원유는 2005년 80.5%에서 2012년에는 70.5%로 감소, 가스는 2005년 77.6%에서 2012년에는 70.9%로 감소

- (아태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 필요성) 에너지 소비가 늘고 있는 동북 아시아 지역으로 에너지 수출량 확대 계획
 - 극동바이칼 지역의 에너지 개발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필요하며, 극동러시아 지역은 에너지 개발과 함께 가스관 건설 필요

1)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2010년 4.5%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4.3%, 2012년 3.4%, 2013년 1.3%, 2014년 0.6%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3.4%로 예상되고 있음. IMF.

2) О состояни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х ресур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3 году.(2013년 광물-자원의 현황과 이용)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러시아연방 천연자원 및 환경부). 2014.

3) Reuters. 2014년 1월 24일.

-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2014년 전체 수입원유의 4.5%, 천연가스의 4%를 도입했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⁴⁾
 - * 원유는 1993년 최초로 수입했으며, 수입비중은 1993년 0.35%에서 2000년 1.2%, 2014년 4.5%로 증가
 - * 가스는 2009년 최초로 수입했으며, 2009년 2.5%에서 2014년에는 4.9%로 증가
- **(유라시아 물류루트 중심지)** 극동러시아 보유 항만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북극항로를 통해 유라시아-동북아시아 연결 물류 기지로서의 높은 가능성
 -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포시에트, 자루비노 등 극동 항만을 중앙아시아, 중국 등 유라시아 내륙 지역과의 물류루트로 활용 계획
 - 장기적으로는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극동 항만을 북서지역의 무르만스크 항, 북극지역의 틱시 항 등과 연결하는 북동지역의 주요 기착항만으로 육성 계획
 - * 러시아 북극항로를 통한 운항횟수는 2010년 4회, 2011년 41회, 2012년 46회, 2013년 71회로 증가⁵⁾
-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다변화)** 한국,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통한 극동러시아의 물류, 농수산업, 자동차 산업 등을 육성하고, 이러한 산업다변화 성과를 러시아 전역에 확산 계획
 - 러시아 정부는 2005년 경제특구제도 도입 이후, 산업, 기술, 관광, 항만 등 네 분야에 17개의 경제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여, 극동러시아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특구를 지정하고 주변국과 산업 협력 확대 계획
 - * 극동러시아 유일의 경제특구인 '소베츠키야 가반 항만특구'(2009년 지정)는 그동안 투자가 매우 부진하였으나, 최근 극동개발 정책 추진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음
 - 농업, 수산업, 기계제작, 관광, 조립가공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극동러시아 지역 투자에 관심을 가진 한중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계기로 할 필요성 대두

4) 한국무역협회.

5) Nataliya Marchenko(2014), "NORTHERN SEA ROUTE: MODERN STATE AND CHALLENGES," proceeding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ean, Offshore and Arctic Engineering, June 8-13, 2014. p. 5.

II.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추진내용

1. 개발 필요성

- 극동개발계획을 통한 자원에너지 및 항만물류 인프라 개선 필요 측면
 - 자원에너지 미개발 및 미생산 지역이 많으며, 운송 인프라가 미흡하여 극동러시아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자원에너지 수출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를 통한 개선 필요
 - 사하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 및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의 개발, 사하공화국과 추코트 주의 광물개발 필요
 - * 극동바이칼 지역에는 러시아 전체 주석의 100%, 다이아몬드의 98%, 금의 67.5%, 수산물의 65% 생산⁶⁾
 - 시베리아 지역에서 극동으로의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가스관 연결을 통한 중국, 한국 및 일본으로의 가스 수출 계획
 - 야말 LNG 생산과 블라디보스톡 LNG 기지 건설로 북극항로를 통한 북극해 LNG의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기존의 사할린 LNG 수출 확대
 - * 러시아의 LNG 생산 규모는 2012년 140억 m³에서 2040년에는 800억 ~ 1,200억 m³로 확대될 전망
 - 한중일의 LNG 수입은 세계 LNG 수입에서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LNG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은 2035년까지 러시아의 가스 부문에 1조 750억 달러, 석유 부문에 7,900억 달러의 투자, 석탄 부문에 250억 달러의 투자 등 막대한 투자 필요한 것으로 평가⁷⁾

6)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사회-경제개발 전략).

7) World Energy Outlook 2011. 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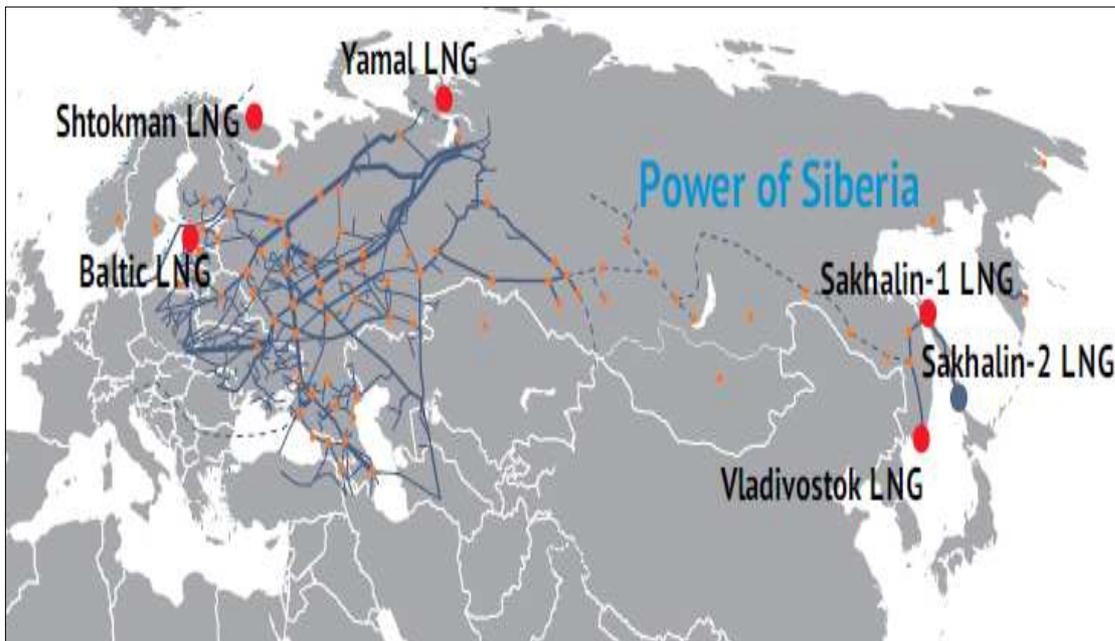
<표 1> 한중일 천연가스 수입 규모

(단위: 억 m³)

	2012		2013		2014	
	가스관	LNG	가스관	LNG	가스관	LNG
중국	214	200	274	245	313	271
일본	-	1188	-	1190	-	1206
한국	-	491	-	542	-	511
세계 전체	6966	3242	7106	3253	6639	3333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 2014, 2015.*

<그림 1> 러시아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과 LNG 기지



주: - 가스관 건설 구간, ...가스관 건설 예정구간

자료: *Global and russian energy outlook to 2040*, The energy research institute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2013. p. 144.

○ 항만물류 인프라의 부족으로, 주요 수출품인 석탄, 곡물의 수출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 항만을 통해 한국, 일본으로의 석탄 수출이 활발하나, 석탄 터미널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수출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석탄터미널의 용량 확대 필요

* 2012년 극동 항만을 통한 전체 석탄 수출량은 4,920만 톤이며, 이는 처리 가능용량인 3,820만 톤을 약 130% 초과⁸⁾

- 항만의 컨테이너, 창고, 선적 및 하역설비 등 노후화로 설비 교체, 화물처리 시스템 현대화 필요

○ 다른 러시아 지역과 비교하여 철도, 도로 등의 운송 인프라 크게 미흡한 수준

- 철도는 1천 km²의 밀도가 2.6 km로 러시아 전체 평균 5.0km의 1/2에 불과하며(철도의 60%는 노후화), 도로는 1천 km²에 9.5km로 러시아 전체 평균 37.9 km의 1/4에 불과

□ 사회 인프라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측면

○ 극동러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

- 소련 해체 시기인 1991년의 극동러시아 인구는 806만 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622만 명으로 22.8%의 인구가 감소하여 러시아 전체 인구 감소율 3.1% 보다 크게 높은 수준

- 러시아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인구 감소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

* 극동러시아와 시베리아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페테르부르크가 위치한 북서지역과 모스크바를 비롯한 중앙 러시아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

* 특히, 극동러시아에는 1997년부터 1999년 금융위기 기간에는 연 평균 6만 4000명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이후 연평균 2만 여명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⁹⁾

8) 삼일회계법인, 「한국 기업들의 극동 사업 진출사례 및 진출전략」, 2014년 10월 27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한러 물류협력 포럼 자료집, p. 95.

9) 러시아 통계청.

<그림 2> 러시아 지역별 인구 변동 비율
(1991년 대비 2014년)

단위: %



자료: 러시아 통계청.

- 극동러시아 지역의 주거환경을 포함한 사회인프라를 개선하여 극동러시아로의 인구유입 필요
 -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지역 발전에 큰 장애요소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통, 사회, 문화 인프라 개선 필요
 - *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의 인구 감소로 이 지역에 인접한 중국 동북 3성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크게 우려

2. 극동러시아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 부처 설립

□ 극동러시아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 극동·바이칼 사회경제 개발전략 수립(2013년 3월)
 - 2013년 3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대내외적 경제여건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2014년 4월 전략을 축소 조정

<그림 3> 극동·바이칼 사회경제 개발전략의 2013년 계획과 2014년 수정안

	2013년 3월 발표 전략	2014년 4월 수정 전략
구성	- 2개의 연방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사회경제발전', '2007~2015년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 - 12개의 하부프로그램 (① 극동·바이칼 지역의 경제의 효율성 향상, ② 광물자원, ③ 목재산업, ④ 수산업, ⑤ 농공단지, ⑥ 수송 인프라, ⑦ 전력 인프라, ⑧ 주민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한 조건 창출, ⑨ 환경보전 및 환경보호의 확보, ⑩ 러시아 연방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실현을 위한 학술 및 인재 확보, ⑪ 관광, ⑫ 러시아연방 국가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개발' 실현 보장)	- 2개의 연방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사회경제발전', '2007~2015년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 - 1개의 하부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사회경제개발전략' 실현 보장과 기타 국토균형 발전 방안)
2025년 목표	극동·바이칼 지역의 급속한 발전, 지역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 제고, 복지개선, 인구 증가 등 * (지역총생산) 2011년의 2.2배 * (인구) 1,200 만 명	극동바이칼 지역의 교통 발전 및 삶의 질 개선, 극동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극동바이칼 지역을 통과하는 생산품의 수출 원활, 극동바이칼 지역의 인구 이동 원활화 * (지역총생산) 2011년의 1.4배 * (인구) 1,750 만 명
예산	(정부예산) 3조 8,169억 루블 (약 1,240억 달러)	(정부예산) 3,461억 루블 (약 100억 달러)
주요 투자 분야	항만, 도로, 철도 등 운송물류 인프라와 에너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복지 분야 등이 주요 투자 분야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과 교통, 물류 프로젝트 사업

□ 극동개발 관련부처 설립

○ 극동개발부 설립을 통해 극동개발 추진을 위한 선도역할 부여

- 러시아 최초의 지역을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로 푸틴 3기가 시작된 직후 2012년 5월에 설립

- (조직)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에 사무소를 두고, 러시아 중앙

지역과 극동 지역 긴밀하게 연계

- (역할) 극동·바이칼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
- (활동분야) 주변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에서 투자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부서 고위 관료들이 기업인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활동

□ 블라디보스톡 극동경제포럼의 연례 개최

-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국제포럼을 추진하며, 이 포럼은 향후 연례행사로 정착될 계획
 - 제1차 극동경제포럼은 2015년 9월 3일~5일 개최될 예정이며, 러시아 정부 관계자, 기업인들이 참석하고, 한중일 기업 초청 계획
- (목적) 극동러시아 인프라 개발이나 산업 부문에 아시아태평양 국가(특히, 동북아시아 3개국)들로부터 투자 유치 목적
 - 러시아 정부가 2015년부터 추진하는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이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대한 투자 유치 계획
- (주요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등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프로젝트 소개할 예정
 - 소수 투자자 대상의 비공개 세션을 진행하여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또한 주요 투자 대상인 한국, 중국, 일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세션 준비
 -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세션 준비

Ⅲ. 극동러시아 투자유치지역 현황

-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TASED: Territory of advancing socio-economic development¹⁰⁾
 - 극동러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선도개발구역 추진
 - 선도개발구역은 최대 70년 동안 운영되며, 향후 연장 가능
 - 2017년까지 초기 3년 동안은 극동러시아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
 - 항만·물류(4), 농업(3), 농가공업(2) 등 14개의 선도개발구역을 추진하여 점차 확대 계획(2014년 6월 발표)
 - 지역별로는 연해주에 5개 지역으로 가장 많으며, 하바롭스크 주 3개 지역, 아무르 주와 사하공화국 각각 2개 지역, 캄차트카 주와 유대인 자치주에 각각 1개 지역
 - 2015년에는 9개의 우선 개발구역을 발표했으며, 투자 의향 기업 유무,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 인프라 건설비용, 입지 조건 등이 선정기준

<그림 4> 2015년 추진 9개 선도개발구역 위치



주: 1차 지정 3개 지역 (붉은색), 2차 지정 6개 지역 (파란색) 구분 표시

10) 이하에서는 약칭으로 선도개발구역으로 명칭함

<표 2> 선도개발구역 지정 현황

연방구성주체		지역명칭	부문	면적(ha)	민간투자 (억 루블)	장기예산 (억 루블)	신규 일자리	
1	사하	바잘트-신기술	건축자재	614.3	170	30	3,000	
2		북쪽 미르(야쿠츠크 시)	보석, 관광	5910	51	29	1,000	
3*	하바 롭스 크	라키토노예	공업	263	260	9	2,600	
4		바니노-소비에트 가반	공업, 항만, 물류	1,103	54.0	15.6	1,800	
5*		콤포몰스크	기계제작, 항공기 부품	298	14.9	5.5	2,000	
6*	연해 주	나제진스크	공업, 물류	782	48.2	7.0	7,800	
7		자루비노	공업, 물류	543	59.0	15.5	3,000	
8		루스키 섬	과학기술, 교육, 관광	252.5	75.8	8.9	5,000	
9**		미하일롭스크	농업	208	27.0	0.7	500	
10		동부석유화학(파 르티잔스크 지역)	석유화학	1,164	191.0	17.5	2,900	
11**	캄차 트카	캄차트카(페트로 파블롭스크-캄차 트카 시)	물류	186	35.0	9.7	1,800	
12**	아무 르주	벨로고르스크	농가공업	678	10.3	1.2	1,500	
13	유대 인차 치주	예카테리노슬랍카	농업	887	17.0	0.2	2,000	
14	유대 인차 치주	스미도비츠키	농업	1,200	20.0	0.3	2,000	
추 가 선 정 지 역	15**	아무 르주	프레드모스토바 야	임가공업, 농가공업, 물류	857.3	128.9	0	1,530
	16**	사하 공화 국	칸갈라스	공업	16.9	1.11	0.2	350
	17**	추코 트주	베링곶스크	광물	5,966,003	206.59	13.03	7,924

주: * 1차 우선 개발 3개 지역(2015년 2월 12일) ** 2차 우선 개발 6개 지역(2015년 4월 28일)

자료: 러시아 극동개발부 14개 선도개발구역 발표(2014년 6월)

□ 주요 투자 프로젝트 발표 (2015년 3월 23일)

- 금, 광물, 석탄의 채굴 및 가공, 운반과 관련된 6개의 우선투자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점차 확대 계획
 - 금 채굴 및 가공업(캄차트카 주, 아무르주)
 - 광물채굴(사하공화국)
 - 석탄채굴(사하공화국, 하바롭스크 주)
 - 석탄터미널(하바롭스크 주의 바니노 항)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 (추진목적)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시와 인근 해안 지역을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대형 항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 자유항 인근 지역에서 항만물류, 과학기술, 수산업, 관광 등 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 자유항으로의 외국인 기업 유치와 물동량 증가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함께 자유항이 포함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 기대
- (내용)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연해주 7개 행정구역에 자유항을 지정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관세자유지역 운영, 외국인 무비자 제도 등을 시행할 계획

<박스 2>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계획안¹¹⁾

- 대상 지역은 블라디보스톡 시, 아르쎬몹스키 시, 나제진스키 군, 쉬코톱스키 군, 빠르찌잔스키 군, 빠그라니치니 군, 하산 군 등 연해주 7개 지역이며, 기존의 선도경제구역이나 경제특구는 자유항에 포함되지 않음
- 70년 동안 운영되며, 연장 가능
- 자유항내 연방세 특혜, 특별 세제 등 포함되며, 관세자유지역을 운영하여, 반입 상품이나 원료에 대해 관세 특혜 제공
- 외국인은 블라디보스톡 공항이나 자유항 항만을 통해 무비자로 출입국 할 수 있으며, 자유항 지역에 72시간 무비자 체류할 수 있음

- (현황) 2014년 12월 4일 푸틴 대통령의 연례 국정연설에서 제안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법안 준비단계
 - 극동개발부가 법안을 준비하여 국회의원, 기업, 지방정부,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법안은 2015년 6월 4일 장관회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2015년 7월까지 발표할 계획
- (기대효과) 자유항 설립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연해주 지역총생산은 2025년까지 2.2배(1조 4,000억 루블), 2034년까지 3.4배(2조 1,000억 루블)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되며, 극동러시아 전체 총생산도 2025년까지 1조 9,700억 루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까지 8만 4,700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2025년까지 10만 8,000여개, 2034년까지 46만 8,5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평가됨
- 평가: 극동러시아 지역에 자유항과 선도개발구역과 같이 지역을 지정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 추진

<박스 3> 자유항 및 선도개발구역, 투자프로젝트의 특징

- 자유항과 선도개발구역은 지역, 부문에서 상이
 - 지역적으로 선도개발구역은 항만, 공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보다 광활한 면적에 설립되며, 자유항은 항만과 공항 인근지대에 설립
 - 산업 부문에서 선도개발구역은 농업, 물류, 광업, 수산업, 항공기 부품, 건축 자재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자유항은 물류 중심에 수산업, 관광, 과학기술 등 네 분야를 대상으로 함
- 우선 투자 프로젝트는 극동러시아 지역의 광물, 석탄 자원의 생산과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여러 형태의 특별경제지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발전 계획
 - 극동러시아 지역에는 항만특구인 소비츠키야 가반(하마롭스크 주), 블라디보스톡 산업특구, 루스키 섬 관광특구 등이 지정되었으나, 블라디보스톡에 자동차 조립 공장이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음

11)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а(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연방법 계획안).

IV. 한·러 경제협력방안

1. 주변국의 극동러시아 진출현황

□ 주변국(중국, 일본)과의 협력 현황

○ (중국) 항만 개발 참여(동북 3성 물류루트 확보), 에너지 도입

- (물류) 자루비노항을 동북 3성 물류기지로 확보 추진 (러중 합작으로 자루비노항 인프라 사업에 투자)
- (에너지) 송유관, 가스관을 연결하고, 2013년과 2014년 러시아와 장기 에너지 공급계약 체결(2013년 6월 25년간 3억 6,500만 톤의 석유공급 계약, 2014년 5월 30년간 연 380억m³ 가스공급 계약)
- (교역)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등에서의 국경무역 활성화 추진(국경무역이 차지하는 규모는 200억 달러로 양국 전체 교역의 약 25%)

* 기타 농업(연해주, 하바롭스크주), 건축자재 생산, 에너지 플랜트 등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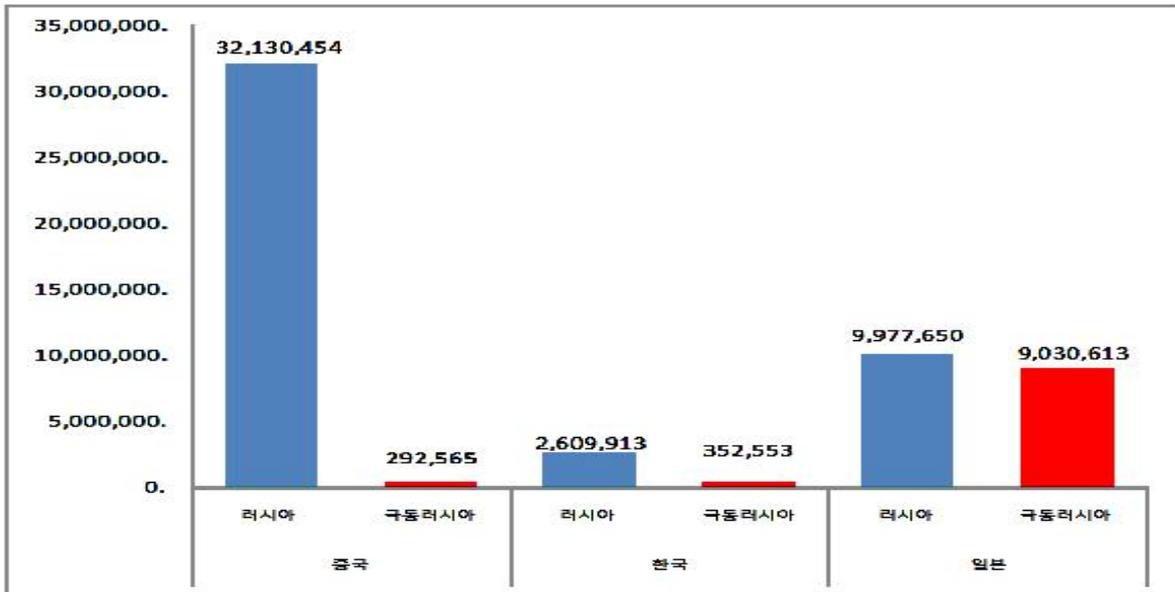
○ (일본) 에너지 도입, 항만 터미널 건설, 관광 부문 참여

- (에너지, 항만 인프라) 블라디보스톡 LNG 터미널 사업 참여, 곡물 및 석탄 도입을 위한 항만 인프라 사업 참여 계획
- (건설, 제조업) 하바롭스크 공항 터미널 건설, 블라디보스톡 자동차 조립 공장 확대
- (관광) 블라디보스톡 루스끼 섬 투자 계획(4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30만 km²의 면적에 골프장과 호텔을 건설)

* 기타 농업 생산(연해주, 아무르주) 투자

<그림 5> 한국, 중국, 일본의 러시아와 극동러시아에 대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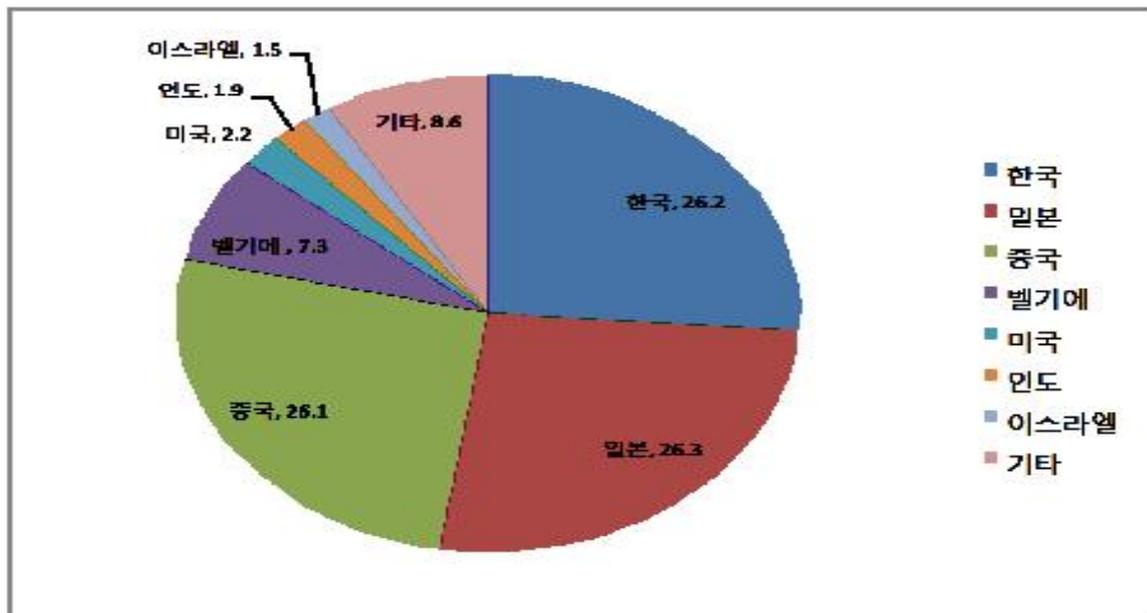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자료: 러시아 통계청

<그림 6> 극동러시아 국가별 교역 비중

단위: %



자료: 러시아 통계

2.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현황과 향후 협력가능분야

□ 극동지역 주요 기업진출 현황

-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건설 부문에 활발히 진출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운송·물류 등에 적극 진출
- 농업, 에너지 개발 등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제조업은 아직까지 성과가 없음

<그림 7> 우리나라 기업의 극동러시아 주요 프로젝트 투자 고려사항

프로젝트	부문	지역	우리기업 진출	외국기업 진출	우리기업의 투자관련 고려 사항
루스끼 섬 개발	관광	블라디보스톡			관련 인프라 미흡, 관광 자원 개발 필요
농업 (선도개발구역)	농업 농산물 가공	연해주, 아무르주 (선도개발구역)	현대 자원 개발, 남양알로에, 아르고 상생, 서울 사료	일본(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중국(유대인 자치주, 연해주)	극동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으로 물류 인프라 개선 적극적 추진 가능성
석탄 터미널, 곡물 터미널	물류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항만 (자루비노(곡물), 포시에트, 바니노, 보스토치니(석탄, 곡물))		일본(곡물터미널 건설 참여 추진)	극동 개발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우리기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확대 가능
에너지 플랜트	석유 가스 발전소	연해주	사 할 린 LNG 개발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일본(블라디보스톡 LNG 프로젝트), 중국 (아무르주 열병합 발전소)	우리기업 경쟁력 보유, 기존의 극동 러시아 지역 진출 경험
수산업 클러스터	수산업	연해주 (쉬코톱스키) 하바롭스크 주 (소비에트-가반)			냉동냉장처리 시설 미흡, 안정적 수산물 공급량 확보 필요
공항 현대화	건설	극동 러시아 전역	LS 네트워크	일본(하바롭스크 공항 터미널, 공항호텔 건설 추진)	최근의 사업 경험, 현지의 우리나라 공항 긍정적 이미지
산업단지	제조 (자동차)	블라디보스톡		일본(블라디보스톡 자동차 조립공장 솔러스사 합작투자)	극동지역의 일본자동차 높은 선호

<박스 4> 한·러 경제관계

- **(교역 및 투자)**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규모는 에너지 위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는 자동차, 전자 등 부문 위주로 이루어짐
- **(교역)** 에너지 수입 증가에 따라 대러 교역규모는 늘고 있으나, 적자가 늘고 있는 추세(**2014년 교역액 258억 달러**(전체 교역의 2.3%로 우리나라 12번째 교역국), **55억 4000만 달러 적자**)
 - * 주요 수입품은 **에너지 및 광물 82%**, 농림수산물 9.5%, 철강금속 6.4%, 수출품은 **자동차 및 기계 64%**, 전자전기 제품 12.7%, 화학공업 8.5%
 - * 2014년 기준 극동러시아와의 교역규모는 102.2억 달러(한국교역의 0.9%, 극동러시아 교역의 26.2%로 일본(102.4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전체 대러 교역액의 39.6%**

<표 2>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무역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7,760	10,305	11,097	11,149	10,129
수입	9,899	10,852	11,354	11,495	15,669
교역규모	17,659	21,157	22,451	22,644	25,798
수지	-2,139	-547	-257	-346	-5,540

자료: 한국무역협회

- **(투자)** 대러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22억 358만 달러이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의 침체로 다소 정체 상태

<표 3>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신규 법인(단위: 수)	29	19	28	13	17
투자금액	334.0	99.6	107.2	122.1	113.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협력이슈)** 기존의 주요 사업인 철도 및 에너지 협력,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러시아의 AIIB 참여 등으로 협력분야가 확대되는 경향
 - 향후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의 협력, 북극해 자원개발 및 북극항로 관련 협력 등이 주요 협력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

□ 항만, 공항 인프라 건설과 물류 협력

- 극동러시아 항만(나훗카, 자루비노, 바니노, 보스토치니 등)에 곡물, 석탄터미널 건설 참여와 이 항만을 우리나라의 물류 루트로 이용
 - 러시아 정부는 나훗카 인근 볼쇼이 카멘 항(2017년까지 곡물터미널 건설)을 비롯한 항만에 농산물 수출을 위한 설비 건설 추진
 - 러시아 곡물, 석탄 이외에 우리나라 기업(포스코, 현대)이 훈춘에 건설하고 있는 대규모 물류단지과 연계하여, 중국 수출입 화물 수송 가능
- 공항 현대화 사업
 - 극동·바이칼 2025 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13개의 공항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으며,¹²⁾ 우리나라 공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우리기업의 참여 유망

□ 농수산업 프로젝트 참여

- (농업) 극동개발부는 연해주, 아무르주 등 3곳의 농업 선도개발구역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농업 부문 진출 고려
 - 기존에 진출한 농기업의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 판로 확보 필요
 - 러시아 정부는 겨울철 채소 공급을 위한 온실 재배에 투자 유치를 희망함에 따라 이 부문에 우리 기업의 투자
 - *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연해주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년 5월)
- 극동러시아 어업 클러스터 프로젝트에 참여
 - 극동러시아의 주요 산업(러시아 전체 수산물의 65% 생산)인 수산업 발전을 위해 블라디보스톡 인근 쉬코토프스키 (shkotovsky) 지역을 비롯한 해안 지역에 어업 클러스터 건설
 - 어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사업과 수산물 가공 등의 부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고려

12)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연방목적 프로그램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발전>), p. 4. 2013년 10월 24일. 2013년 10월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경제사회발전 연방목적프로그램'(2009년 12월 수립)은 2025년까지 연장됨.

□ 석유·가스 화학 분야 및 플랜트 건설

- 향후 극동 러시아 지역을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석유, 가스 수출 확대 전망으로 에너지 플랜트 설비 건설 필요
 - 기존의 단순 원료수출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도개발구역에 2곳의 석유화학 단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한 진출 고려
 - 사할린 에너지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플랜트 수출(해상 플랫폼, LNG 플랜트)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 고려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영관(02-6255-5759)

ykj@koreaexim.go.kr

< 참고 문헌 >

삼일회계법인, 「한국 기업들의 극동 사업 진출사례 및 진출전략」, 2014년 10월 27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한·러 물류협력 포럼 자료집.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

----- 2014.

----- 2015.

Global and russian energy outlook to 2040, The energy research institute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2013.

Nataliya Marchenko(2014), "NORTHERN SEA ROUTE: MODERN STATE AND CHALLENGES," proceeding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ean, Offshore and Arctic Engineering, June 8-13, 2014.

IMF.

World Energy Outlook 2011. EIA.

<О состояни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х ресур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13 году>(2013년 러시아 연방 광물-자원의 현황과 이용).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 천연자원 및 환경부). 2014.

Проект Федеральнй закон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연방법 계획안).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사회-경제개발 전략>).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연방목적 프로그램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발전>).

러시아 통계청.